

기획

12월 8일~2011년 2월27일 광주展

키스해링은 다

‘나는 그리는 능력으로 세상에 이바지 한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그릴 것이다’

올해는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1958~1990)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오는 12월 8일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 공동주최로 열리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12월8일~2011년 2월27일·광주시

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예술세계를 되돌아 보는 뜻깊은 기회다.

사실 키스 해링은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이름이다. 그러나 빛나는 개, 빛나는 아기 등의 이미지들은 친근함을 준다. 그 이유는 T셔츠, 운동화, 스위치 시계 등 유명브랜드 제품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름은 생소해도 작품은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 그가 바로 키스 해링이다.



‘짝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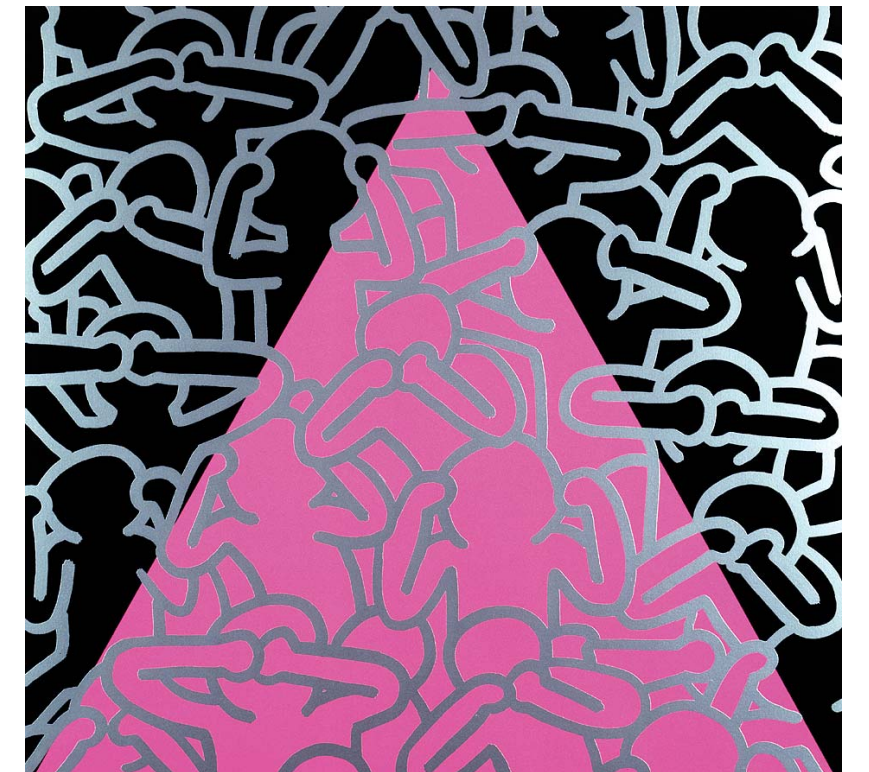
1 팝아트의 슈퍼스타

앤디 워홀 이어 전성기 이끌어

앤디 워홀이 팝아트의 문을 연 작가라면 키스 해링은 팝아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해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뉴욕의 벽면이나 지하철 광고판에 낙서를 그리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검은색의 윤곽선과 강

렬한 원색, 재치가 넘치는 낙서화(Graffiti Art)로 뉴욕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다. 외설스러운 성적 이미지에서부터 목격 한 사회·정치적 메시지까지 다양한 발언을 했다. 에이즈 합병증으로 32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가 10여년 간의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상을 남긴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스승’이나 다름없는 앤디 워홀과의 인연은 그의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앤디 워홀을 위해 그린 ‘앤디 마우스’(Andy Mouse) 연작이 대표적이다. 자신 보다 30살이나 위였지만, 존경과 예술적 교감으로 세대를 뛰어넘은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침묵’

2 뉴욕의 사회운동가

반핵·인종차별·성 자유 주도

해링은 팝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였다. 1958년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로 반전·반핵·성 자유사상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1978년 뉴욕 시각예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느끼기 시작했다. 길

거리, 지하철, 클럽의 벽을 캔버스 삼아 지나가는 평범한 뉴욕커들에게 말을 걸었다. 도시 미관과 공공기물 훼손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연행됐지만 낙서화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1982년 뉴욕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반핵시위에서 자비로 만든 반핵포스터를 배포했으며 1985년에는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포스터 2만장을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에이즈 환자였던 해링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촉구했다. 동성애자 모임의 상징인 분홍색 삼각형 위에 손으로 눈과 귀를 막은 회색 윤곽선의 인물을 빼곡하게 배치한 ‘침묵=죽음’(Silence=Death)은 에이즈에 대한 침묵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3 영원한 피터팬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 세상 꿈꿔

키스 해링의 그림을 좋아하는 관객들 가운데에는 유독 어린이가 많다. 작품속에 만화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했지만 개, 새, 돼지 등의 동물과 아기를 즐겨 그린 덕분이다. 특

히 그는 어린이와 함께 작업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다. 지하철에 낙서하던 시절, 자주 사용했던 기어가는 아기의 서명은 시인 르네 리카르드(Rene Ricard)가 ‘빛나는 아기’로 명명해서 일약 유명해진 작품이다. 대표작인 ‘아이콘’ 연작인 ‘빛나는 아기’는 순수함과 에너지, 악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총 21점으로 구성된 ‘빨강과 파랑 이야기’(The story of red + blue)는 독일 출신 아트딜러인 한스 마이어의 자녀들을 위해 그린 시리즈. 해링 특유의 컬러감각이 묻어나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작품이다.



‘앤디마우스’

〈사진 제공 키스해링 재단〉

4 21세기 패션아이콘

운동화·시계 등서 작품 되살아나

키스 해링이 ‘팝아트의 전설’로 불리게 된 것은 세련된 컬러와 역동적인 이미지의 조화 때문이다. 지극히 평범한 소재와 주제를 다뤄지만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원색과 화이트 넘치

는 표현은 신세대들의 감성을 사로잡았다. 반핵과 인종차별 등 목격 한 주제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감각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간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미술관에서 보다 운동화, 시계, 휴대폰 등 유명 브랜드의 소인물에서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참된 예술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살다간 키스 해링의 작가정신은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의 티셔츠와 모자속에서 살아숨쉬는, 패션 아이콘으로 부활했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무제’

〈키스해링 재단 제공〉

팝아트란?

‘미술은 무겁고 어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회화양식. TV나 매스미디어, 상업광고, 코카콜라, 만화 캐릭터 등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 들였다. 대표작가로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클레스 올덴버그 등이 있다.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직항기로 떠나신나누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 한국능률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퍼워 1위

BRAND STAR

브랜드스톡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KS-SQI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무안공항 마카오 전세기

홍콩 | 마카오 | 4박 5일

출발요일: 목(4일), 일(5) 주 2회 운항

요금 **899,000원~**

■ 상품특전

- 무안공항출발
- 스탠리마켓, 리펠스베이, 빅토리아피크-홍콩대표 관광지
- 마카오 시내관광, 성바울 성당 등 주요 관광지 관광
- 암차식, 광동식 등 현지식 제공

규슈 온천 여행!

특별한 추억, 감동의 선물

하나투어 창립 17주년
하나투어 단독주최

김수희
孝콘서트

일본 부관철키

김수희와 함께하는 ‘효’ 콘서트

출발일: 11월 27일 (단 1회)

출발지: 광천터미널 맞은편 빽스앞 집결

부산항 출발 - 부관철키

요금 **569,000원~**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선내식 2회, 광주/부산국내수송, 불포함 사항: 선내식 2회, 기사&가이드봉사료(20,000원 - 성인, 아동 동일)

영어 캠프 상품

“내 아이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요금 **1,650,000원~**

1차: 2011년 1/4일 ~ 1/15일
2차: 2011년 1/18일 ~ 1/29일

■ 캠프 장소: 서해 유스호스텔
■ 참가 대상: 초등 3학년 ~ 중등 1학년

■ 캠프 특전

1. 형제/자매 예약 5만원 할인
2. 4인 단체 예약 5만원 할인
3. 200시간 이상의 영어 몰입 환경 제공
4. 비전 리더십 특강 제공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용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경비 포함: 여행자보험(해외1억원/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공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 선택경비: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정표에 명시), 개별적인 팀 및 비자비용 별도 ■ 서울시 중로구 공평동 1번지(주)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7호(서울) ■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10명 ■ 숙소: 2급 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남자는 오동변동 있음)